

하늘이 내린 큰 복

天賜
洪福

明慧期刊 제146기





목차 CONTENTS

- | | | |
|------------------------|----|---|
| 권두일문 | 1 | 진상은 단비처럼 조용히 마음을 적신다 |
| 독후감 | 2 | 미국 교수 학생들과 공유:
《인류사회는 왜 미혹(迷)의 사회인가》 |
| 길성고조
(吉星高照) | 4 | 큰물이 집 앞에서 방향을 틀다 |
| | 5 | 뜻밖의 재난에서 무사하다 |
| 절체절명에서
살아나 | 6 | 두 차례 경험한 생명의 기적 |
| | 8 | 우울증과 학업 회피에서 이상적인 대학 합격까지 |
| | 11 | 두 가지 암을 극복한 행운의 환자 |
| 세상을 이롭게 | 12 | 두려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다 |
| | 16 | 대만서 5천여 명의 글자 퍼포먼스로
‘진선인’을 전하다 |
| 평안을 얻는 길 | 18 | 전염병 속에서 기적을 목격한 사위, 태도가 바뀌다 |
| | 20 | 전염병 위기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지킬 것인가 |
| 아는 것이 복 | 22 | 선함으로 편견의 얼음을 녹이다 |
| | 24 | 잘 알려지지 않은 마르크스의 참모습 |
| 항간여론 | 28 | 전염병 화제로 8명이 동시에 탈당 |

진상은 단비처럼 조용히 마음을 적신다

글/ 혜소(慧笑)
(중국)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9평 공산당)이 세상에 나온 지 20년이 되었다. 정의로운 사람들은 붉은 공포 아래에서도 탄압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상을 전파해 왔으며, 이로 인해 4억 3천만 명의 중화 자손이 공산당, 공청당, 소선대에서 탈퇴하는 ‘삼퇴(三退)’ 대열에 동참했다. 그리고 매일 수만 명씩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진실은 단비와 같아 마음을 적시고 깨우쳐주어 모르는 사이에 사람 마음이 변하고 있다. 아래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작은 이야기다.

가을이 되어 농부들이 재배한 여러 열매가 익어가자, 많은 도시 사람들이 과일을 따기 위해 농촌으로 몰려들었다. 이때 파룬궁수련자들은 시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9평 공산당 출간 20주년, 4억 3천만 중화 자손의 삼퇴’, ‘천멸중공(天灭中共), 탈당으로 생명을 보호하라’, ‘전통으로 돌아가야 인류에게 희망이 있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찰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등의 진상 현수막을 걸었다.

어느 날, 한 방문객이 현수막 몇 개를

발견하고 찢어내 신고했다. 관련 부서가 이를 주민위원회에 전달했고, 주민위원회의 한 간부는 “이 사람은 할 일이 없나 보다. 무슨 일이든 참견하네.”라고 말했다. 또 관련 직원은 “요즘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어서 공산당이 하는 말은 무조건 다 믿는다. 정말 머리가 없다.”라고 했다. 이틀 후 파출소 경찰이 현지 파룬궁수련자의 집을 방문했지만, 파룬궁에 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파룬궁수련자가 먼저 진상을 이야기하자, 경찰은 진상을 깨닫고 삼퇴를 했다.

진상 현수막이 가을의 단풍 사이에서 바람에 휘날리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다. 더 아름다운 풍경은 사람들의 마음이 선함으로 돌아가고 정의로운 기운이 상승하는 모습이었다.

지난 20년은 하나의 과정이자 위대한 증거다. 새것과 낡은 것이 교체되는 특별한 시기에, 우리는 정념을 유지하며 웃으면서 아름다운 새 시대를 맞이하자. 공산당이 없는 아름다운 내일을 맞이하자!



리홍쯔 선생이 전 인류를 위해 발표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왜 중생을 구도하려 하는가》
 《인류사회는 왜 미혹(迷)의 사회인가》

▲ 리홍쯔(李洪志) 선생은 일련의 글을 발표하여 인류의 기원, 삼계(三界), 그리고 우주의 미혹(迷)을 밝혀냈으며 구구절절 천기를 담고 있다.

미국 교수 학생들과 공유: 《인류사회는 왜 미혹(迷)의 사회인가》

글/ 시평(施萍)·상춘(常春) (미국)



▲ 미국 하와이 대학교 종신교수 저우샤오.

미국 하와이대학교 정치학과 종신 교수이자 기독교신자인 저우샤오(周晓) 교수는 이 문장을 네 번이나 읽고 감사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왜 중생을 구도하려 하는가’ 등의 문장에 이어 파룬궁 창시자 리홍쯔(李洪志) 대사(大師)께서는 2024년 9월 30일에 ‘인류사회는 왜 미

혹(迷)의 사회인가’라는 문장을 발표하셨다. 미국 하와이대학교 정치학과 종신 교수이신 저우샤오(周晓) 교수는 이 문장을 네 번이나 읽고 감사

한 마음을 가졌다. 그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 학생들과 교회 교우들, 친구들에게도 전달했다. “리홍쯔 대사님의 문장에서 신의 존재를 명확히 말씀하신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용기와 지혜가 있으신 것입니다.” 저우 교수는 리홍쯔 대사의 문장이 끼치는 영향력을 ‘사랑의 촛불’과 ‘광명한 대도(大道)’에 비유했다. 그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념, 바로 선



량한 광명대도를 견지하라는 것”이라며 “그분께서는 정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 수많은 중생을 구원하러 오실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모두에게 희망을 주셨다고 생각하며 저는 리 대사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오늘날 혼란한 세상에서 무신론이 횡행하고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배척과 탄압을 받고 있다. 저우 교수는 에포크타임스(大纪元) 인터뷰에서 “리 대사님의 문장을 본 후 제 신념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신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념과 희망이 있으면 살아가는 것이 달라집니다. 바로 이런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런 선량함과 사랑을 지킬 수 있기에 미궁 속에서 고통이 덜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때로 신께서 왜 그렇게 많은 고통과 재난을 만드시고, 또 그렇게 많은 악인이 중국에서 횡포를 부리도록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리 대사의 문장은 그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리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미혹의 곳도 창세주께서 만드신 것이며, 우리 인간이 선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삼계를 벗어난 후에야 더 높은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

기에 이 경지가 바로 천국입니다.” 저우 교수는 이 선택이란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선량함과 사랑이라는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며,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도 생활 속에서 ‘선’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우 교수는 프린스턴대학교 박사 출신으로, 그녀는 예전부터 리홍쯔 대사를 주목해왔으며 리 대사를 현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 중 한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그녀는 매일 파룬궁수련자들이 운영하는 매체를 보고 있으며, 파룬궁이 반드시 중국과 세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저우 교수는 리 대사가 신의 존재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창세주가 인류를 구원하러 올 것임을 알려줌으로써 인류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선함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더 높은 경지로 승화할 수 있다고 그녀는 믿고 있다.

기독교 신자인 저우 교수는 리 대사에 대한 깊은 감사를 여러 번 표현하며 이렇게 말했다. “만약 당신들이 리 대사를 만날 수 있다면, 저희의 감사를 꼭 전해주세요.”





큰물이 집 앞에서 방향을 틀다

[랴오닝 투고] 2024년 8월 말, 랴오닝 지역에 드문 대홍수가 발생했다. 우리 마을은 일주일 동안 폭우와 집중호우가 이어졌다. 마을 동쪽 지역은 지대가 낮아 수해가 특히 심각했다. 동쪽 십자로 근처에 개인이 운영하는 한 정비소가 있었는데, 이번 홍수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나는 이 정비소 주인을 알고 지냈고, 자주 파룬궁 진상 자료를 그의 가족에게 전해주곤 했다. 그들 가족 세 명은 모두 파룬궁이 좋다고 믿었다. 가끔 외지에서 온 손님들에게 내가 파룬궁의 진상을 이야기할 때, 그들 가족도 함께 도와주곤 했다.

홍수가 지나고 얼마 후, 내가 정비소를 지나가다가 안부를 묻기 위해 들렀다. 마침 주인의 아들이 차를 고치고 있었고 우리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계속된 폭우와 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청년은 자신의 집에 물이 들어올 뻔했지만, 다행히 어머니가 “파룬따파는 좋습니다”고 계속 외운 덕분에 무사했다고

말했다.

그때 주인의 아내가 집 안에서 나와 이야기했다. “물이 너무 많이 차오르더니, 집 안으로 들어올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멈추지 않고 이렇게 말했죠. ‘리대사님, 제가 파룬궁을 수련하진 않지만, 파룬궁을 지지합니다! 파룬궁 수련자들이 모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제발 이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계속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우리 집 앞에서 방향을 틀어 북쪽에 있는 두 집 사이의 통로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나는 그녀에게 “그건 당신 가족 모두가 파룬궁이 좋다고 믿어서 받은 복입니다!”라고 말했다.

파룬따파는 불가의 고덕(高德) 대법으로, 중공의 비방과 탄압 속에서도 사람들이 진심으로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고 외친다면, 이는 선과 악의 싸움에서 정의와 선함을 선택한 것이며 신불(神佛)의 보호를 받게 된다. 오늘날 세상은 혼란 속에서 도덕성이 빠르게 추락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자연재해와 인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모든 사람이 진상을 이해하고 마음속 선함을 지키며, 신의 가호를 받기를 바란다.





뜻밖의 재난에서 무사하다

[랴오닝 투고] 2024년 8월 4일 아침 8시가 조금 넘는 시간, 나는 아침 시장에 가서 양고기 국을 사려고 했다. 한 철물점 앞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폭발이 터지는 듯한 큰 폭발음이 들렸다.

당시 철물점 근처 거리에 있던 행인은 나를 포함해 세 명이었다. 나와 나란히 걷던 한 여성의 이마와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또 다른 남성은 귀를 손으로 막고 있었고, 귀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철물점에서는 불길기 치솟아 검은 연기가 건물 위로 솟구쳤고, 근처에 주차된 몇 대의 자동차가 부서졌으며, 현장은 엉망진창이었다.

주변 건물에서 많은 주민이 뛰쳐나왔다. 두 사람이 다가와 나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나는 당시 머리 위에서 어떤 물건이 떨어져 등을 스친 것 같았다고 말하고, 등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 그들은 조그마한 굵은 자국 하나뿐이라고 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저는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에도 피가 나지 않은 것을 보고, 그들



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정말 행운입니다.”라고 말했다.

다친 두 명의 행인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친 남성의 몸에는 유리 파편이 박혀 있었다. 누군가가 “현장에 세 명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요?”라고 묻자, 나는 “한 명은 저입니다. 저는 괜찮아요.”라고 대답했다. 이를 본 지인은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라 어디에도 상하지 않았어요.”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철물점 내부의 산소통 폭발로 인해 발생했으며, 가게에 있던 한 노인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그날 밤,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마음속으로 거둬 대법과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에 감사했다! 딸도 이번 일이 파룬궁의 보호 덕분이라고 믿었다.





그녀가 경험한 두 차례 생명 기적

명혜 토론토 지국 보도

◀ 올해 88세인 류란은 중년에 대퇴골두 괴사로 양손에 지팡이를 짚고 다녔지만, 노년에는 오히려 나는 듯이 걷는다.

류란(刘兰)은 올해 88세이지만 걸음이 매우 날렵하다. 사람들은 그녀가 활기차게 걷는 모습을 보고 건강함에 감탄한다. 하지만 과거에는 양손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던 그녀가 도대체 어떻게 회복된 것일까?

대퇴골두 괴사 치유, 목발을 버려

류란은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연구소에서 40년간 기술자로 일했고, 1992년에 퇴직했다. 그 후 계속 다리가 아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대퇴골두 괴사였다. 당시 그녀의 병세는 이미 양손에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 할 정도였고, 병원에서는 반드시 절단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류란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중공 당원이었고 무신론자였어요. 중의학 양 의학을 다 써봤지만, 효과가 없어서 결

국 기공을 시작했고 또한 불문(佛门)에 귀의하기도 했지만, 다리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통증이 심해 매일 밤 진통제를 먹어야 겨우 잠들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누군가 그녀에게 파룬궁을 한번 해보라고 권했다. 당시 파룬궁은 중국에서 매우 유행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에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졌다. 류란은 ‘전법륜(转法轮)’을 빌려와 읽기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기적이 일어났다.

그녀는 말했다. “그날은 한여름 밤이었어요. ‘전법륜’을 읽기 시작해 첫 번째 강의를 다 읽었는데, 갑자기 졸음이 밀려와 책을 내려놓고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어젯밤엔 다리가 아프지 않았네? 약 먹는 것도 깜빡했구나!’ 둘째 날에도 ‘전법륜’ 두 번째 강



의를 입었는데, 또 같은 일이 일어났고, 셋째 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책이 정말 신기하다고 느꼈죠.”

류란은 1997년 파룬궁을 수련하기로 했다. 당시에는 아직 탄압이 시작되지 않은 시기였고, 그녀는 파룬궁 9일 학습반에 등록해 리홍쯔(李洪志) 사부님의 설법 비디오를 시청했다. 첫 강의를 들은 후, 그녀는 큰 짐을 내려놓은 듯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꼈다.

수련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류란은 목발을 버렸고, 예약해 두었던 대퇴골 두 절단 및 교체 수술을 취소했다. 마침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류란의 이야기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졌고, 그녀의 다리 질병이 치유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한 13명의 동료가 파룬궁수련자가 되었다.

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한 이후에도 류란은 수련을 견지하며, 수련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보증서에 서명을 거부했다. 그녀는 당당히 말했다. “여러분은 제가 수련 전과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셨잖아요. 제가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저는 진선인(真善忍·진실·선량·인내)을 수련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녀의 직장 보안처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계

속 보호해 주었다.

입원 3일 만에 바이러스를 이겨내다

2005년, 류란은 캐나다로 와서 딸과 함께 살았다.

2021년 6월, 코로나 유행 시기에 그녀의 딸이 직장에서 감염돼 집에 와서 짐을 챙긴 후 밖에서 격리됐다. 짧은 접촉으로 류란의 남편도 감염됐다. 류란의 남편은 구급차로 응급실로 이송됐고 엑스레이 촬영 결과 이미 폐의 절반이 하얗게 변해 있었으며 2주간 입원 후 사망했다.

류란은 남편을 돌보다가 자신도 몸이 좋지 않음을 느꼈다. 호흡 곤란을 겪었지만 3일간 입원 후 검사 결과 이미 완치된 상태였다. 병원에서 일하는 류란의 딸은 당시 토론토에서 80세 이상 노인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모두 사망했는데, 단 두 명만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류란의 혈액을 채취해 연구한 결과 항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란은 딸에게 병원에 전해달라고 했다. ‘진선인’을 수련하기 때문에 혈액 속의 순수한 에너지가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아 항체가 생겼다고 말이다. 그녀는 늘 “제 목숨은 대법 사부님이 주신 거예요.”라고 말한다.





우울증과 학업 회피에서 이상적인 대학 합격까지

글/ 혜육(惠毓, 중국)

저는 중국의 한 신흥 1선 도시에서 자란 '90년대생' 여성으로, 올해 서른을 넘겼습니다. 지금 14년 전, 고등학생 시절의 경험을 적어보려 합니다.



▲ 회화: '빛을 향해', 작가: 중국 청년 파룬궁수련자 (명혜망)

2010년, 저는 성(省) 내 중점 고등학교 이과 '로켓반'에 다녔습니다. 매일 끝없는 각 과목 숙제에 시달렸고 자주 밤 11시나 새벽까지 공부했습니다. 매 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순위가 매겨졌고 시험 후마다 담임 선생님은 반에서 상위권 학생들을 칭찬하고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을 꾸짖으며 면담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늘 교실에서 985, 211 명문대 진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1점 더 받으면 한 줄의 사람들을 제친다"라는 식으로 말해 학생들의 정신

적 부담은 매우 컸습니다.

급성 맹장염으로 인한 심한 통증

2010년 8월, 고1 여름방학 보충수업 중 오후 화학 수업에서 갑자기 오른쪽 아랫배에 통증이 왔습니다. 저는 힘들게 화학 수업을 듣고 통증을 견디며 하교 시간까지 버텼습니다. 마침 학교에서 며칠 휴가를 줘 아픈 채로 집에 갔습니다. 각 과목 선생님들이 일주일치 숙제를 내줬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에도 통증은 계속되었고, 밤에는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다. 낮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죽조차 삼킬 수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먹으면 메스꺼움과 구토가 뒤따랐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걱정하며 인터넷으로 제 증상을 찾아보셨는데 급성 맹장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약국에서 한약을 사와서 달여 마시게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파룬궁이 떠올랐습니다. 제 가족은 1999년 이전에 파룬궁과 접촉한 적이 있었고, 파룬궁이 질병을 치유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놀라운 효과를 직접 목격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탄압이 시작된 후, 파룬궁을 수련하던 지인들이 단지 합법적으로 청원하고 파룬궁의 진실을 말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을 잃고, 떠돌이 생활을 하거나 가정이 파탄 나는 등의 박해 모습을 보고 우리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파룬궁 관련 서적과 자료를 숨겨두고, 수련했던 사실을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급성 맹장염으로 인한 심한 통증 속에서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마음속으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사부님께 저를 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배가 순식간에 아프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학교가 두렵고, 조롱받는 게 무서워

병 때문에 고등학교 과목별로 내준 일부 과제를 하지 못한 채 학교에 갔는데 저는 매우 긴장했습니다. 수학 선생님은 특히 엄격해서, 그날 오후 수업이 끝난 후 제 자리로 오더니 물었습니다. “○○○○, 너 오늘 왜 수학 과제를 안 냈어? 이유를 솔직히 말해!” 저는 작은 목소리로 하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두 번 써 와!” 이 말을 듣고 반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저는 주변의 모든 친구가 저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너무 두려워서 학교에 가는 것이 무서워졌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은 영어를 가르치는데, 매우 엄격하셨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집에 찾아오셔서 제 상황을 물어보셨고, 부모님은 제가 며칠간 병 때문에 과제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저를 데리고 학교로 돌아갔지만, 저는 여전히 교실에서 주변 친구들의 이상한 눈길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가장 못난 학생, 과제를 하지 않은 학생으로 낙인찍힌 것 같았습니다. 이후 저는 점점 학교를 피하게 되었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졌습니다. 물리 선생님이자 학생 지도를 담당하는 학생부장 선생님은 제 상황을 알게 된 후 많은 관심을 보이며 담임 선생님과 함께 다시 집



을 방문했습니다. 대화를 나눈 후, 선생님은 저에게 심리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성 부속 병원(삼갑 병원)에 가서 50위안을 내고 심리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여성 의사는 물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왔나요?” 제가 “학교 가는 게 무서워요.”라고 말하자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는 정신과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저는 더 큰 두려움에 빠졌고, 급히 학교에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병원 심리 상담 후 제 학업 회피와 우울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등교가 두렵고 친구들의 비웃음이 무서웠던 것에서 나아가 외출도,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심지어 밖에 나가 산책하는 것조차 무서워하는 심각한 우울증 상태였습니다.

‘전법륜’을 배우며 우울증에서 벗어나

그 당시 저는 집에 틀어박혀 바닥에 앉아 양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린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모든 방법이 막막했던 상황에서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과거에 알던 한 파룬궁수련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연공하며 가부좌하고, 함께 ‘전법륜’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을 배우면서 저는 점차 스트레스와 좌절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용감하고 자신감 있으며 강인한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정신 상태는 점점 좋아졌고, 더는 친구들의 비난이나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울증과 학교 회피로 인해 물리 과목의 자기장 부분을 놓쳤는데, 물리는 제게 가장 약한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낙담하지 않고 조금씩 놓친 과목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매주 대법 단체 학습에 참여하며 파룬궁 관련 저서를 꾸준히 읽었습니다.

파룬 불법(佛法)은 제 지혜를 열어 주었고, 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2012년 이과 성적 531점으로 4년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순조롭게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옆 반의 한 여학생은 심리적 우울증으로 학교를 회피하여 여러 심리 상담을 받았고, 독일인 의사까지 만나보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대법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아마 휴학이나 자퇴를 했을 것이고,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파룬따파 사부님의 자비로운 구도에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암을 극복한 행운의 환자

글/ 온형(溫馨, 베이징)



작년 4월, 나는 이웃 류웨이(刘伟, 가명)가 두 암 전문 병원에서 위암과 직장암 진단 받고 수술을 위해 병상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류웨이는 예전보다 정신 상태가 많이 나빠졌고, 얼굴은 어둡고 노랗고, 위통으로 인해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이루지 못했다. 그의 아내는 무척 초조해 보였다.

나와 딸은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었고, 우리는 여러 번 류웨이의 집을 찾아가 진상을 알리고,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전산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마음속으로 반복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법륜(轉法輪)’ 한 권과 플레이어 하나를 선물했는데, 그 안에는 파룬궁 사부님의 광저우 설법과 공법을 가르치는 동영상도 담겨 있었다. 류웨이는 ‘전법륜’을 읽고 매일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들었다. 그는 “사부님 말씀이 참 좋아요. 모두 착한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시네요.”라고 말했다. 그의 아내도 “파룬궁이 참 좋네요. 공산당이 말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네요.”라고 했다. 부부는 가입했던 중공의 공청단과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했다.

다치지 않아 류웨이는 병원에 대해 위암 수술을 받았고, 위의 대부분을 절제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수술 후 회복도 매우 순조로웠다. 그는 통증도 거의 느끼지 않았다. 같은 날 수술 받은 다른 환자들은 그에 비해 몹시 고통스러워했고 회복 속도도 늦었다. 의사는 류웨이의 회복 상태를 확인한 후,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고, 그는 곧 퇴원할 수 있었다.

한 달이 조금 지나 병원에서 류웨이에게 직장암 수술을 준비를 위해 다시 검진을 받으라고 했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사들은 류웨이의 직장암이 사라지고, 양성 용종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의사들은 만약 처음부터 오진이었다면, 두 곳의 유명 암 전문 병원이 모두 직장암으로 진단을 내린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우리가 류웨이를 방문했을 때, 그는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매일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마음속으로 되뇌며 대법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들었다고 말했다. 퇴원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대법 진언을 외우고, 법을 배우며 연공을 이어갔고 그의 몸 상태는 점점 더 좋아졌다. 류웨이는 파룬궁이 자신을 구했다고 믿으며,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련을 시작했다. 



▲ 알렉산더와 그의 아내 폴리나, 두 딸.

두려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다

명혜 호주 지국 보도

알렉산더(Alex)는 구소련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유대인 사업가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재산을 모았다. 그러나 당국은 그의 아버지 재산을 탐냈고, 알렉산더가 아홉 살이 되던 해 구소련 경찰이 갑자기 집에 들이닥쳐 총을 들고 어린 알렉산더에게 아버지가 어

디 있느냐고 추궁했다. 다행히도 그의 아버지는 당시 집 안에 숨어서 경찰에게 잡혀가지 않았다.

그때는 구소련이 막 해체된 뒤의 혼란기였다. 생존을 위해 알렉산더의 가족은 2000km 이상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서둘러 피신했다. 알렉산더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 당시 저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어린 시절 겪은 강렬한 충격으로 인해 늘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지배당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17살이 되던 해, 그의 가족은 러시아를 떠나 이스라엘로 이주했다. 19살이 되었을 때 그는 군대에 입대



해 국경경비대에 배치되었다.

운명을 바꾼 전단

어느 날, 알렉산더는 근무 중에 파룬궁을 소개하는 전단을 주웠고 전단에는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전단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흐르는 느낌이 들었고, 눈물이 저절로 흘렸습니다. 드디어 오랜 세월 동안 찾아 헤매던 것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주말 휴가 때 저는 예루살렘의 파룬궁 수련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로 파룬궁의 공법 동작을 배울 때, 알렉산더는 그 동작이 매우 익숙하게 느껴졌고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이는 아마도 불가(佛家)에서 말하는 인연일 것이다. 2004년, 알렉산더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는 변함없이 수련을 이어오고 있으며, 그의 운명을 바꾼 그 전단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극복

알렉산더는 어린 시절 구소련에서의 경험 때문에 항상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곤 했다. 마치 어디에나 스며

드는 눈이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러한 두려움은 그를 침묵하게 했고, 자신의 의견이나 관점을 드러내는 것을 피하게 했다. 그러나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후, 알렉산더는 서서히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자신감을 얻었다.

알렉산더는 이후 군에서 지휘관으로 승진했다. 그는 병사들과 함께 순찰하던 중, 한 과수원을 지나게 되었다. 젊고 혈기 왕성한 병사들이 꿀을 따기 시작했는데, 예전 같았으면 알렉산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 알렉산더는 파룬궁을 수련한 지 20년이 되었다.



수련 이후 그는 올바른 일을 할 용기를 갖게 되었다. 굴을 흠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한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굴 한 알이라도 그것이 당신 것이 아니라면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병사들은 이 일을 두고 계속 이야기하며, 알렉산더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고 자신들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군 복무가 끝나기 전, 알렉산더는 휴가를 얻었다. 마침 예루살렘 시청에서 대규모 퍼레이드를 개최했는데, 파룬궁 수련자들도 이 행사에 참여했다. 알렉산더는 노란색 파룬궁 티셔츠 복장에 풍선을 들고 행진에 참가했다. 그가 이끌던 병사들은 행사에서 보안을 담당하고 있었다. “행진이 끝난 후 병사들이 저에게 인사를 건네며 환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미소를 통해 제가 수련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인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고 알렉산더가 말했다.

선함으로 갈등을 해결해

“수련하기 전에는 러시아 경찰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들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병든 교육과 열악한 환경의 피해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알렉산더가 말했다.

가족이 이스라엘로 이주한 후, 알렉산



▲ 파룬궁의 다섯 번째 공법을 하고 있는 알렉산더의 아내 폴리나.

더의 부모는 여전히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심지어 집주인조차 신뢰하지 않았고, 집주인 또한 알렉산더의 부모를 이해하지 못했다. 알렉산더는 양측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양쪽의 불만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다.

그는 말했다. “저는 부모님과 집주인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모든 갈등을 해결하며 제 마음을 계속 닦아 나갔습니다. 저는 항상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고, 어느 쪽에도 화를 내지 않았으며, 단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고려하면서요. 집주인이 필요한 것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모님이 만족하며 더는 다투지 않도록 했습니다. 양쪽 모두에 자비심을 품으려 노력했고, 그들이 제 선의를 보게 되자 점점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룬궁



수련자로서 저는 그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마지막으로 “두려움은 공산주의가 우리 내면에 심어 놓은 일종의 물질입니다. 만약 대법을 수련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러한 경험을 두려움을 극복할 기회로 보지 못했을 것이고, 오히려 두려움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대법은 제게 두려움의 껍질을 뚫고 나가 제 안에 있는 선한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전쟁 속에서 평온을 전해

알렉산더의 아내 폴리나(Polina) 역시 구소련에서 태어나 17세에 이스라엘로 이주했다. 알렉산더가 그녀에게 파룬궁을 소개했을 때, 폴리나는 강렬한 에너지를 느꼈다. 그녀는 ‘전법륜’을 읽기 시작했고, 그 책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인생의 답을 발견했다.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은 대규모 테러 공격을 받았고, 1000명 이상의 민간인과 군인이 목숨을 잃었다. 어린이, 여성, 노인들은 살해되거나 인질로 잡혀갔다. 폴리나는 이 일을 두고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트라우마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테러 사건은 이스라엘 전역을 두려

움과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파룬궁수련자들은 온라인으로 가르치는 공법 학습반을 열어 폭력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면의 균형과 평온을 되찾는 방법을 제공했다. 폴리나는 학습반에서 자원봉사로 활동하며 매주 한 번씩 공법 동작을 가르쳤다.

현재까지 약 500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이 학습반을 통해 파룬궁을 배웠다. 폴리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파룬궁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전쟁 속에서 희망을 가져다주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사람들은 폴리나에게 여러 차례 그들에게 연공이 아름다운 경험을 가져다주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어떤 사람들은 “원래 걱정과 스트레스로 가득했는데, 연공을 하고 나니 마음이 평온해지고 즉시 안도감을 느꼈다.”라고 했다.

폴리나는 자신이 근무하는 한 국제 회사에서 두 차례의 파룬궁 학습반을 열었고, 약 100명이 참가했다. 동료들은 고요함과 강력한 에너지를 느꼈으며, 더 많은 공법을 배울 기회를 원한다고 했다.

폴리나는 “사람들이 파룬궁을 배우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혜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라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





대만서 5천여 명의 글자 퍼포먼스로 ‘진선인’을 전하다

명혜 기자 황위성(黃宇生) 대만 보도

2024년 11월 17일 오전, 5200여 명의 파룬궁수련자들이 타이베이 자유광장에서 대규모 글자 퍼포먼스 활동을 진행하며 ‘파룬(法輪) 도형’과 ‘진선인(真善忍-진실·선량·인내)’ 세 글자를 만들었으며,

이 장엄하고 평화로우며 진귀한 광경이 외국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글자 배열 활동이 끝난 후에는 단체 연공을 실시해 시민과 여행객들에게 평화로운 공법을 보여주었고, ‘사은호탕(師恩浩蕩, 사부님의 은혜는 크고도 넓다)’ 현수막으로 리홍쯔(李洪志) 사부님께 경의를 표했다.

대만 파룬따파 학회 이사장 샤오쑹산(蕭松山) 교수는 파룬궁수련자들은 글자 배열을 통해 수련인의 확고한 신념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대만의 자유와 포



▲ 보험업에 종사하는 황성제(黃聖杰)는 3대에 걸쳐 10명의 가족이 파룬궁 수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황성제(왼쪽)와 부모(가운데) 및 여동생(오른쪽)이 함께 글자 퍼포먼스에 참가한 모습.

용성도 드러냈다고 했다. 특히 중공이 20여 년간 파룬궁을 탄압해온 배경 속에서 대만 파룬궁수련자들은 진선인을 핵심 가치로 삼아 신앙 자유를 표현하고 인권의 보편적 가치가 소중함을 강조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중공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상기시켰다.



파룬궁이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는 리홍쯔(李洪志) 선생께서 전하신 불가(佛家)의 상승(上乘) 수련대법으로 우주 최고 특성 ‘진선인(真·善·忍, 진실·선량·인내)’을 근본 지도로 삼으며, 느리고 아름다운 동작의 5가지 공법이 있다.

파룬궁은 사람을 선(善)을 향하도록 가르치며 수련자에게 일상 생활에서 진선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고 선량하며 관용하는 좋은 사람이 되며 끊임없이 자신의 도덕 수준과 경지를 향상할 것을 요구한다.

파룬궁은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데 뚜렷한 효과가 있다. 1998년 중국 국가 체육총국이 수련자 1만 2553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질병 완치 및 기본 회복률은 77.5%, 건강개선율 20.4%를 더하면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총유효율은 97.9%에 달했다.

현재 파룬따파는 세계 100여 개 나라에 전파됐고 수련자 수는 1억이 넘는다. 리홍쯔 선생이 제자들의 수련을 지도하는 주요 저서인 ‘전법륜(轉法輪)’은 5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각지에서 출판 발행하고 있으며 각 민족의 파룬따파 수련자들이 매일 필독하는 책이다.



전염병 속에서 기적을 목격한 사위 태도가 바뀐다

글/ 악하(乐霞, 허베이)

몇 년 전 전염병이 한창일 때, 딸이 전화로 말했다. “아이에게 열이 나고 기침도 심해요.” 다음 날, 딸은 다시 전화를 걸어 김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저랑 남편도 코로나에 걸렸어요. 아이에게 옮으면 큰일인데 정말 걱정돼요.”

나는 말했다. “아이에게 ‘파룬따파하

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계속 반복해서 외우게 해, 그러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딸이 여전히 불안해하는 것 같아 말했다. “그러면 내가 며칠 동안 아이를 돌보러 갈게.” 그러자 딸은 망설이며 말했다. “은 집 안에 바이러스가 퍼진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무서워서 오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오셨다가 감염될까 봐 걱정돼요. 오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는 대법 수련자로서 사부님이 우리에게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떠올렸다. 딸의 시어머니는 수련하지 않으니 감염을 두려워



하는 것이 이해할 수가 있다. 지금 딸과 사위가 모두 감염된 상황에서 병에 걸린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곧바로 딸의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딸과 사위가 마스크를 쓴 채 기대와 감사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마스크를 벗지도 못할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머리가 묵직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었으며, 주변 환경도 답답하고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다리를 들고 앉아 발정념을 하며 공간의 부정적인 것들을 청리하기 시작했다. 몇 번 발정념을 하고 나니 머리와 주변 환경이 맑아진 것을 느꼈다.

7~8일이 지나면서 아이는 점점 회복되었고, 나는 감염되지 않았다. 이 모습을 본 사위는 파룬궁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무신론과 중공의 허위 선전으로 인해 파룬궁과 그 수련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사위도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다. 한 번은 사위가 나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수련하는 것 때문에 딸과 아들이 명칭해졌어요. 사회에서 싸우지도 않고 순응만 하면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은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선악에 대한 보응은 하늘의 이치니까.”

딸은 결혼한 지 10여 년이 넘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해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고 가족 모두가 실망에 빠져 있었다.

딸은 수련자는 아니지만, 파룬궁 책을 읽고 대법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딸은 돈을 들여 USB 메모리 수십 개를 구입해 대법 진상 자료를 저장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했다. 프린터가 고장 나면 수리도 도왔다. 딸은 내 수련과 진상을 전하는 일을 지지했는데, 이것이 딸에게 복을 가져다주었다. 기적적으로 임신을 했고,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나와 딸 모두 이것이 대법이 하사한 축복이라고 믿고 있다.

딸과 사위가 감염되고 아이가 아픈 상황에서 나는 그들과 함께 먹고 지내면서 전혀 감염되지 않았고, 그들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왔다. 사위는 깊이 감동했고, 파룬궁이 좋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말했다. “제가 인터넷에서 700~800위안 주고 플레이어를 하나 샀습니다. 아내가 파룬궁을 제대로 수련하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반갑게 웃었다.





전염병 위기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지킬 것인가

글/ 자군(紫君)

중국의 공식 부고 소식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다수의 중공 당원, 고위 관료, 그리고 공산당을 지지했던 전문가와 유명 인사들이 사망했다. 전염병 초기에는 많은 노년층이 세상을 떠났고, 최근 1년 동안은 청년과 장년층의 사망 사례가 흔해졌다. 예를 들어, 올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북경대, 칭화대, 복단대 등 중국의 명문 대학에서 30여 명의 교수가 사망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중공 당원이었다. 그중 60세 이하의 교수는 6~7명, 가장 젊은 교수는 37세였다.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코로나 전염병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으며, 언제든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고대인들은 “전염병에는 눈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전염병은 무엇을 겨냥해 온 것일까?

파룬궁 창시자인 리홍쯔(李洪志) 대사는 이미 ‘이성(理性)’이라는 글에서 계시하셨다. “사실 역병 자체는 바로 사람의

마음을 겨냥하고 도덕이 나빠게 변하고 업력이 커진 것을 겨냥해서 온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공 바이러스’(우한 폐렴) 이런 역병은 목적이 있으며, 목표를 가지고 온 것이다. 그것은 사당분자(邪黨份子) 및 중공사당(中共邪黨)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도태하러 온 것이다.”

중공은 지난 여러 차례 정치 운동에서 8천만 중국인을 박해해 죽였고 파룬궁을 잔인하게 박해한 것에 대해 천벌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선량한 파룬궁수련자들이 박해를 받고 있으며, 고령의 어르신들조차 예외가 아니다. 수련자들이 박해로 사망하는 사례는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다음의 세 가지 사례는 중공의 잔혹한 박해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헤이룽장성 자무쓰시 파룬궁수련자 런창빈(任长斌·60세)은 수련에 대한 신념을 고수했다는 이유로 2024년 9월 23일 부당하게 상야산 감옥에 수감됐다. 입소 당시 신체 건강 지표는 정상이었지만 단 5일 만에 런창빈은 박해로 인해 사망했다. 그의 시신에는 여러 곳에 멍 자국이 있었고, 머리에는 꺾맨 흔적이 있었으며, 눈 주변은 멍들어 있었고 발에도 상처가 있었다.

지린성 공주링시 왕젠잉(王劍英·80세)과 왕위잉(王玉英·68세) 남매는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2024년 8월 초 자택에



서 지역 공안에 의해 체포되었고, 두 사람은 궁주령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2024년 9월 10일경 여동생 왕위잉이 박해로 인해 사망했다. 사건 이후, 중공 당국자들은 유가족에게 3만 위안을 주며 입을막음을 시도했다. 가족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나 항소할 길은 막혀 있는 상황이다.

쓰촨성 광한시의 80세 파룬궁 수련자 세창춘(謝長春) 노인은 2024년 4월 19일, 1년의 억울한 감옥 생활을 마치고 청두 여자 교도소를 나왔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왼쪽 복부에 통증을 느꼈고, 피부가 노랗게 변하더니 점차 검게 변했으며 몸이 점점 쇠약해져 교도소에서 독극물에 중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었다. 결국 출소 후 3개월여 만인 2024년 8월 12일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역사적으로 바른 신앙을 박해한 세력은 결코 좋은 결말을 보지 못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다 네 차례의 대규모 전염병을 겪으며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여러 명의 황제조차 전염병으로 급사했다. 현재의 전염병 역시 중공이 중국인들과 파룬궁의 진선인 파룬 불법(佛法)을 박해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다.

전염병에서 안전하게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 리 대사는 세인들에게 명확히 경고하셨다. “중공사당(中共邪黨)을 멀리하고, 사당(邪黨)을 위해 줄을 서지 말아

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의 배후에는 붉은 마귀가 있기 때문으로, 표면적인 행위가 깡패일 뿐만 아니라 온갖 악한 짓을 다 한다. 신은 그것의 제거를 시작하려 하는바, 그것을 위해 줄을 서는 자는 모두 도태될 것이다. 믿어지지 않으면 지켜보도록 하라.”

리홍쯔 대사는 이미 글 ‘이성’에서 개시하셨다. “사람들은 마땅히 신에게 진심으로 참회해야 하는바, 자신의 어디가 나쁜지, 잘못을 고칠 기회를 주기를 희망해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방법이며, 이것이야말로 영단묘약(靈丹妙藥)이다.” 그는 또한 제자들에게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진상을 알리고 삼퇴(三退)하고 진심으로 진언(真言)을 염(念)하는 것이 모두 가장 좋은 영단묘약이자 사람을 구하는 방법이다. 사람의 마음이 개변되면 곧 일이 바른 면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전염병은 나이와 상관없이 중공 당원과 중공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데려가고 있다. 중공의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에 소속되어 있거나, 공산당을 지지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 심지어 국제적으로 중공과 가까운 사람들까지 큰 위험에 처해 있다. 모든 사람이 중공과 거리를 두고 관련 조직에서 탈퇴하여 자신과 가족의 평안을 지키기를 바란다.





선함으로 편견의 얼음을 녹이다

글/ 이련(伊蓮, 허난)



20년 동안 저는 외삼촌과 만나도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

명절이나 기념일이 되면 나는 항상 선물을 들고 외삼촌을 찾아갔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외삼촌은 나를 향해 거칠게 욕을 퍼부으며 내가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을 반대하셨다. 보통 선물을 내려놓고 서둘러 나왔다. 외삼촌이 더 큰 구업(口業)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외삼촌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가 거짓말에 세뇌되었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젠가 그가 진실을 깨달길 바라는 마음으로 변함 없이 외삼촌을 찾아갔다.

코로나 전염병 시기, 어느 날 나는 다시 선물을 들고 외삼촌 댁에 갔는데 이번에도 외삼촌은 나를 훈계하기 시작했다. “공산당이 너에게 월급을 주는 줄 알아? 그런데도 그 당을 반대해?” 이번에는 그냥 돌아서 지 않고 차분히 말씀드렸다. “외삼촌, 그만 말씀하세요. 집이 아주 더러운데, 제가 청소해 드릴게요.” 외숙모가 일찍 세상을 떠

나서서 외삼촌은 혼자 살고 계셨고, 집안은 매우 더러웠다. 주방 벽과 레인지후드에는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거실부터 시작해 방 안 구석구석을 모두 깨끗하게 청소하고, 천장부터 바닥까지, 모든 공간을 청소한 뒤 철 수세미로 화장실도 구석구석 문질러 깨끗이 닦았다. 오후 5시가 넘도록 계속 일한 뒤, 외삼촌에게 말했다. “저 이제 갈게요. 며칠 후에 다시 와서 계속 청소해 드릴게요.” 외삼촌은 땀투성이가 된 나를 보며 감동하셨는지, 눈물을 흘리며 대문까지 배웅하셨다.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외삼촌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나도 눈물을 흘렸다.

며칠 쉬고 난 뒤, 다시 외삼촌 댁을 찾아가 한동안 머물며 주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방의 모기장을 모두 교체하고, 침실에 두꺼운 커튼을 달아드렸다. 침대 시트와 이불도 모두 세탁했다. 그 후 외삼촌은 저에게 1000위안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나는 거절하며 말씀드렸다. “조카로서 외삼촌께 효도



할 일만 있을 뿐인데,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어요?” 외삼촌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외숙모가 세상을 떠난 뒤, 아이들은 다 바빠서 아무도 내 일을 챙기지 않더구나.”

나는 외삼촌 댁에 소파가 없고, 식탁은 낡고 더러워진 것을 보고 새 소파와 식탁을 사드렸다. 외삼촌은 감동하며 “요즘 사람들은 다들 명예와 이익을 위해 살잖아. 그런데 너희 파룬궁 수련자들은 명예도, 이익도 바라지 않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러는 거니?”라고 물으셨다. 나는 대답했다.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세요.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해도 대꾸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잘해주고 항상 타인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외삼촌은 나에게 ‘전법륜(轉法輪)’을 한 권 달라고 하셨고, 진지하게 두 번 읽으셨다. 그리고 나서 파룬궁이 진선인(真善忍-진실·선량·인내)의 기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친다는 것을 깨달으셨다. 이제는 내가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을 더는 반대하지 않으신다.

지금은 내가 외삼촌 댁을 찾아가면, 외삼촌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 외삼촌은 진상을 분명히 깨달으신 후 선량해지셨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의 전염병 기간에 한 번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셨다.



천안문 ‘분신자살’ 사기극을 꿰뚫어 보자

경찰이 소화기를 메고 순찰하나?

‘분신자살’ 접화 1분도 안 되어 천안문에 어디서 이렇게 많은 소화기가 왔을까? 경찰이 소화기를 메고 순찰하는가?

돌발 사건인데 화면이 안정적이고 또렷하다

‘분신자살’은 돌발 사건인데, CCTV에서 촬영한 화면은 안정적이고 또렷하며 영상은 원경, 근경과 클로즈업까지 갖췄다. 업계 사람들은 딱 봐도 ‘포즈’를 취하는 연기임을 알 수 있다.

맞아 죽은 걸까, 불에 타죽은 걸까?

CCTV의 느린 화면에서 군복 차림의 한 남성이 무거운 물체를 들고 류춘링(劉春玲)의 머리를 내리쳐 그녀가 즉시 쓰러지는 장면이 있다. 류춘링은 맞아 죽은 걸까, 불에 타죽은 걸까?

휘발유가 가득 찬 사이다 페트병이 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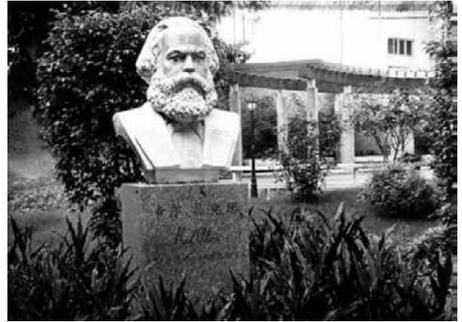
왕진동(王進東)이 입은 옷은 불에 탔는데, 그의 두 다리 사이에 있는 휘발유가 가득 찬 사이다 페트병은 새것처럼 새파랗다.





잘 알려지지 않은 마르크스의 참모습

글/ 탄봉진(彈封塵), 편집/ 추실(秋實)



마오쩌둥을 포함한 중공 당수 세 명은 “죽어서 마르크스를 만나러 간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를 통해 중공이 이 서양인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진짜 모습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중국인들은 거의 알지 못한다. 마르크스에 대한 인상은 대부분 중공이 우리에게 강제로 주입한, 정교하게 꾸며진 이미지에 불과하다. 인터넷의 발전은 중공의 일방적인 정보 독점을 깨뜨렸고, 우리는 이제 중공이 의도적으로 감추었던 역사적 진실을 접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를 통해 숨겨진 부분을 복원하여 진정한 마르크스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마르크스의 진정한 신앙

마르크스는 독일의 부유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가 여섯 살이 되던

해, 그의 가족은 기독교로 개종했다. 마르크스는 중학교 시절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을 쓸 정도로 종교적이었다. 그러나 대학교에 입학한 후 그의 성격은 급격히 변했다. 알 수 없는 증오의 불길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것 같았고, 이는 그의 부모에게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안겼다.

서방의 마르크스 연구자들은 그가 대학 시절 사탄 신앙에 영향을 받았고, 비밀리에 사탄 교회에 가입했다고 밝혀냈다. 사탄은 하나님을 질투하고 증오하며, 하나님이 창조한 인류도 증오한다. 마르크스가 그 시기에 쓴 시와 희곡에는 이러한 질투와 증오가 가득 담겨 있다.

마르크스가 18살 때 쓴 희곡 ‘울안엠(Oulanem)’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훼멸, 훼멸…… 광기의 절규와 함께 인류 전체를 저주한다…… 어둠 속, 끝없는 지옥의 틈이 너와 나를 향해 열릴 것이다. 너는 떨어질 것이고, 나는 웃으며 뒤따르며 속삭일 것이다.



‘내려와 나와 함께하라, 동지여!’”

또 다른 시 ‘연주자’에서는 그는 이렇게 썼다. “지옥의 기운이 솟아올라 내 정신을 채운다. 나는 미쳐버리고, 내 마음은 완전히 변했다. 이 칼을 보았는가? 어둠의 왕이 나에게 팔았다. 그는 나를 시간으로부터 해방시켰고, 내게 낙인을 찍었다. 나는 죽음의 춤을 더욱 대담하게 추었다.”

이러한 시들은 마르크스의 내면세계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다. ‘연주자’에서 그는 자신의 영혼을 팔고 악마로부터 칼을 샀다고 고백한다. 그는 자신이 죽은 후 지옥에 갈 것을 알고 있었고, 전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고 선언했다.

또 다른 작품 ‘창백한 소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나는 천국을 잃었고, 이를 알고 있다. 한때 하나님을 믿었던 나의 영혼은 이제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다.”

작품 ‘인간의 교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질투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때 나는 신처럼 승리의 행진을 할 것이다. 이 세상의 폐허를 오가며. 내 말이 강력한 힘을 얻었을 때, 나는 창조주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느낄 것이다.”

마르크스가 사탄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은 이제 비밀이 아니다. 그의 작품과

편지, 그리고 서방 학자들의 방대한 연구는 모두 공개되어 있다. 단지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했을 뿐이다. 마르크스가 사망 후 묻힌 고급 묘지는 런던 지역의 사탄 숭배 중심지였다.

마르크스의 인품

중국에서는 “백 가지 선 중 효가 으뜸”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런 개념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엥겔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두 시간 전에 전보를 받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나는 많은 경우에 늙은 여성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필요했다. 나는 유산을 받기 위해 트리어로 떠나야 한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도 마르크스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가 가장 신경 쓴 것은 오직 유산이었다.

마르크스의 아내 예니에게는 자녀가 없는 90세의 백부가 있었다. 노인이 사망한 후, 마르크스는 엥겔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행복한 일이다…… 그 늙은 개가 재산의 대부분을 어떤 여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내 아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마르크스는 가족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젊었을 때는 부모에게 의지했고, 결혼 후에는 아내의 지참금을 썼으며, 이후에는



거의 전적으로 엥겔스의 시혜에 의존해 생활했다.

에니에게는 헬렌이라는 지참금으로 달려 온 가정부가 있었다. 마르크스는 이 무산자를 무임금으로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성적 노예로 삼았다. 그는 헬렌과의 사이에서 사생아를 낳았다. 그러나 자신의 ‘무산 계급의 도사’라는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르크스는 독신이던 절친 엥겔스에게 이 아이의 아버지 역할을 맡기게 했다. 엥겔스는 임종 직전 이 사실을 마르크스의 막내딸에게 고백했고, 그녀는 충격을 받아 자살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마르크스-엥겔스 연구소의 리아자노프(Riazanov) 소장이 저술한 ‘카를 마르크스, 인간 사상가 혁명가’라는 책에서 기록된 것이다. 또한 마르크스의 자필 편지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런던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중 오스트리아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고 포상금을 받은 적이 있었다. 제공한 정보 한 건당 25달러의 보상을 받았는데, 고발당한 대상은 그의 동지와 친구들이었다.

“가장 해로운 책”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의 서문에서 이렇게 썼다. “하나의 유령, 공산주의라

는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이 유령에 대한 신성한 토벌을 위해 구(旧) 유럽의 모든 세력, 교황과 러시아 군주 등이 연합했다.” 그리고 선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썼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견해와 의도를 숨길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그들의 목적은 폭력을 통해 기존의 모든 사회 체제를 전복하는데 있다.”

이 두 문장은 공산주의의 본질을 분명히 드러낸다. 공산주의는 ‘유령’(귀신, 악마와 같은 존재)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이 ‘유령’은 천리에 역행하기 때문에 인류로부터 ‘신성한 토벌’을 받는다. 이 ‘유령’은 반(反)인류적이며, 폭력을 통해 기존의 모든 사회 체제를 전복하려 한다.

공산주의는 소련, 중국, 캄보디아, 동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1억 명 이상의 비정상적 죽음을 초래했다.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인 마르크스는 공산주의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의 잡지 ‘피플’(Human Events)은 19세기와 20세기를 통틀어 세계에서 가장 해로운 책 10권을 선정한 적이 있다. 이 목록에서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 두 세기 동안 “가장 해로운 책”으로 꼽혔다.



마르크스의 또 다른 저서인 ‘자본론’ 역시 이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마르크스의 죄악이 가족에게 미친 영향

중국 전통 관념에 따르면, 조상이 악행을 저지르면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는 마르크스의 경우에서도 증명되었다. 마르크스와 그의 아내 예니는 총 7명의 자녀를 낳았으나, 그중 4명은 어린 시절에 요절했다. 살아남은 세 딸도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다.

마르크스의 장녀 제니는 38세에 암으로 사망했다. 차녀 로라는 자신의 세 자녀를 모두 직접 묻었으며, 결국 남편 라

파르그와 함께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마르크스가 가장 사랑했던 막내딸 엘레노라는 연인과 함께 자살하기로 했으나, 43세의 나이에 그녀만 죽고 연인은 마지막 순간에 망설여 살아남았다.

마르크스는 서방에서 외면받았지만, 중공은 그를 조상처럼 떠받들며 중국인들에게 그를 숭배하라고 속였다. 그러나 최근 진실을 밝혀 전파한 사람들 덕분에 많은 중국인이 깨닫게 되었다. 중공은 중국을 대표할 수 없으며, 중국을 사랑하는 것은 공산당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마르크스·레닌의 자손이 아닌, 중화의 자손이 되어야 한다! 

전염병 화제로 8명이 동시에 탈당

글/ 이가(李佳)



4억 명이 넘는 중국인이 중공의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했다. 그 과정에는 많은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삼퇴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

어느 날, 파룬궁 수련자인 위윈(玉云)은 한 남성을 만나 그에게 중공 및 관련 조직에서 탈퇴할 것을 권했다. 이 남성은 말했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천 위안을 주면, 바로 탈퇴하겠습니다.” 위윈은 차분히 답했다. “그렇다면 제가 어쩔 수 없네요. 당신이 돈 때문에 탈퇴하는 거라면,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생명의 선택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고, 하늘이 주는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악을 선택할지, 선을 선택할지는 당신의 몫이며, 그것이 바로 당신

의 미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남성은 다시 말했다. “공산당이 나에게 돈을 주니, 난 탈퇴하지 않을 겁니다.” 위윈은 그에게 설명했다. “당신이 받는 것은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입니다. 공산당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공산당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남성은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공산당의 문제는 우리가 반대하고 싶어도 반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기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겠습니까?” 위윈은 그에게 말했다. “저항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공산당의 희생양이 되지 말고, 그들이 진 피의 빛을 짊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공산당은 당신이 반대하



지 않아도 하늘이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선량한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택하고, 자신이 가입했던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에서 탈퇴하면 하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은 말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결해서 집단 파업을 하고, 이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사회입니까? 그들을 이렇게 배불리 먹이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그저 그들을 위해 일하는 거잖아요.” 위원은 그의 말을 이해하며 “이 체제 아래에서 모두가 매우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전염병 확산은 하늘이 사람을 거두는 중

위원은 이어 코로나 전염병의 대규모 확산과 많은 중공 당원 및 관료들의 사망을 언급했다. “공산당은 너무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수많은 중국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각종 정치적 탄압이 모

두 피의 빛으로 남아 있습니다. 선악에는 반드시 보응이 따릅니다. 하늘이 사람을 거두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중공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남성은 감격하며 말했다. “저는 전염병 당시 우한에 있었고, 우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화장하려면 며칠씩 기다려야 했죠.” 위원은 말했다. “당신은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이 모르고 있습니다. 하늘은 더 많은 선량한 중국인이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더 많은 공산당원, 공청단원, 소선대원을 도태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쁜 일을 저지른 것은 공산당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것의 순장품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결국 이 남성과 일행 7명, 총 8명의 중공 당원은 함께 탈당을 선언했다. 



삼퇴 정보

2024년 11월 22일 현재, 해외 탈당 웹 사이트에서 4억 39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삼퇴’(공산당, 공청단, 소선대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인터넷 봉쇄 돌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삼퇴’ 웹 주소 <https://tuidang.org>에 접속한 후 실명, 가명 또는 소명을 사용하여 진심으로 탈퇴하시라.



神賜九把劍

作者/ 明明

九评神賜九把劍，
 揭出邪灵坏心肝。
 爱国不是爱恶党，
 要做中华好儿男。
 提升道德走正路，
 神传文化复中原。

신이 내린 9자루 검

저자/ 명명

9평 공산당은 신이 내린 아홉 자루 검,
 사악한 영혼의 본색을 드러내네.
 나라 사랑은 악당 사랑이 아니하니,
 진정한 중화의 아들딸 되어야 하리.
 도덕을 높이고 바른길 걸으며,
 신이 전한 문화를 중원에 되살리자.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 발표 20주년을 기념하며

봉쇄돌파 소프트웨어 받는 방법

[PC 버전] <https://j.mp/fgp88>

[안드로이드 VPN] <https://j.mp/fgv88>

안내: 중국산 브라우저에서는 이 주소가 열리지 않을 수 있어 Edge, Chrome, 애플 Safari 등 브라우저를 권장합니다.